



재즈를 듣다 - 4 딕시랜드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실용적인 전화기를 최초 개발했다. 목소리를 진동으로 바꿔 원거리에 도달하는 것을 목격한 토머스 에디슨은 이 진동 패턴을 새겨 놓을 수 있다면 역으로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듬해 1877년, 최초 축음기인 포노그래프(Phonograph)를 발명했다.

녹음 기술의 발명이 20세기 음악사의 혁명 자체였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포노그래프 발명 전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가 있었다. 1829년에 등장한 자동 피아노다. 종이에 구멍을 낸 '피아노롤'을 돌리면 건반이 저절로 눌러지기 때문에 '유령 피아노'라고도 불렸다. 라흐마니노프가 본인 연주를 기록한 피아노롤을 듣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미뤄 상당히 정확한 연주를 재현했나 보다. 엔리코 카루소, 토스카니니 등이 제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대단히 조악한 음질로 인해 듣기 괴롭지만, 현대에 자동피아노로 재생하여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연주는 당연히 음질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건반이 눌러지는 걸 눈으로 보며 동시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피아노 전공자에게엔 이보다 좋은 선생이 없었을 것이다. 이를 보고 따라 하며 랙타임 등을 연주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꽤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아노에 국한돼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 비싼 가격으로 인해 축음기 발명 후 얼마지 않아 사라져 버렸다.



에디슨 축음기 발명 후 10년 뒤, 에밀 베를리너는 본격적인 음반 시대를 연 '표준시간 음반', 일명 SP판과 기계장치를 발명하여 그라모폰(Gramophone)이라 했다. 이것이 독일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의 모태가 되었다. 미국에선 '빅터 토킹 머신 컴퍼니'라는 축음기 제조사가 설립됐고,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 사가 이를 흡수 합병하여 'RCA 빅터'가 되었다. 에디슨 축음기를 판매했던 '컬럼비아 포노그래프 컴퍼니' 역시 SP판을 발매하기 시작하여 RCA 빅터와 경쟁하였다.



세계사에서 1917년은 2월과 10월, 두 번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격동의 해였다. 이 해는 재즈 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최초 재즈 음반이 발매되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디시랜드 재즈 밴드(The Original Dixieland Jass Band)’, 줄여서 ODJB라 일컫는 5인조가 연주한 ‘리버리 스테이블 블루스(Livery Stable Blues)’였다. 빅터사가 발매한 이 음반은 크게 히트해 최초의 밀리언 셀러가 되었다. ‘타이거 랙(Tiger Rag)’ 역시 공전의 히트를 했다.

딕시(dixie)는 ‘딕시의 땅(Dixie’s Land)’이란 행진곡이 민스트럴 쇼를 통해 유행하며 미국 남부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다. (유튜브에서 ‘Dixie’s Land’를 검색해 들어보니 어렸을 때 영화를 통해 주위들은 익숙한 선율이라 놀랐다.) ODJB는 딕시를 재즈의 발상지인 뉴올리언스를 대신하여 사용했으리라고 본다. 또한 재스(Jass)를 곧 재즈(Jazz)로 바

꾼다. ‘Jass’가 엉덩이(ass)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때 이미 ‘재스’ 대신 ‘재즈’란 말이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밴드는 전원이 백인이다. 흑인 대중이 창조한 장르의 첫발을 백인이 뗀 것이다. 일설에는 코넛 연주자였던 프레디 케파드(Freddie Keppard)가 첫 녹음을 할 뻔했으나 자신의 연주법을 남이 훔쳐 갈 것을 우려해 거절했다고도 한다.

앞서 소개한 두 곡 외에도 유튜브에서 ODJB 연주를 꽤 여러 곡 청취할 수 있다. 음질이 좋지 않긴 하지만 집중하여 들어보면 상당히 능숙하고 좋은 앙상블을 들려준다. 하지만 종종 유연성이 결여돼 있다는 평을 듣는다. 흑인 특유의 본능에 가까운 스윙 감각이 부족하다 보니 마치 즉흥 연주를 채보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듯하다. 자신들의 밴드명과 달리 이들의 연주는 ‘오리지널’이 아닌 모방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백만 장이 넘게 팔려나간 음반의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이다. ‘재즈’라 명명한 새로운 음악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기 재즈, 즉 뉴올리언스 재즈가 완성된 해를 보통 1923년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해에 ‘킹 올리버와 크리올 재즈 밴드(King Oliver and his Creole Jazz Band)’가 녹음한 음반이 나왔다. 킹 올리버는 (트럼펫의 일종인) 코넛 연주자로서 젤리 롤 모튼(Jelly Roll Morton), 시드니 베세(Sidney Bechet)와 함께 초기 재즈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밴드가 들려준 집단 즉흥 연주에 의한 스윙감이 초기 재즈의 주요 특징이다. 유튜브에서 크리올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딥퍼 마우스 블루스(Dipper Mouth Blues)’, ‘프로그기 무어(Froggie Moore)’, ‘스레이크 랙(Snake Rag)’ 등을 들어보면 좋을 듯하다. 유감스럽게도



오리지널 디시랜드 재즈 밴드 / 출처 : smithsonianmag.com



킹 올리버와 크리올 재즈 밴드 / 출처 : earlyjazz.jp

킹 올리버의 만년은 매우 좋지 않았다. 그의 스타일이 새로운 조류인 빅밴드 재즈에 밀려 구식으로 치부돼버린 데다 잇몸에 심한 병을 얻어 치아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악기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 경제공황이 터졌다. 당구장 등에서 잡일을 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고 만다.

1923년 크리올 재즈 밴드 녹음 당시 세컨 코넷 연주자는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이었다. 여타 흑인과 마찬가지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3세 때 한 축제에서 흠친 권총을 재미 삼아 허공에 난사하는 사고를 치는 바람에 소년원을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는 행운 아닌 행운을 얻게 되었고 곧 천재성을 드러낸다. 훗날 크리올 재즈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릴 하딘(Lil Hardin)과 결혼한다. 릴 하딘은 ‘마누라 말들어 손해 보는 일 없다’는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무명의 루이 암스트롱을 최고 연주자로 키운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평생 해로하지는 못하고 이혼했다) 그녀의 조언을 따라 구세대 취급을 받던 킹 올리버를 떠나 빅밴드 리더인 플레처 헨더슨(Fletcher Henderson) 악단으로 소속을 옮겼고, 몇 년을 활동한 후 드디어 1925년, 리더로서 5명 또는 7명으로 구성된 ‘루이 암스트롱과 핫 파이브와 핫 세븐(Louis Armstrong and his hot five and hot seven)’을 결성한다. 이 시기에 코넷에서 트럼펫으로 악기를 바꾼다.

보통 루이 암스트롱 하면 ‘헬로 달리(Hello dolly)’, ‘맥더 나이프(Mack the Knife)’,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른 팝가수로 인식하지만, 사실 그는 재즈 역사에 첫 등장한, 그야말로 천재였고, ‘핫 파이브와 핫 세븐’ 활동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스트러팅 위드 썸 바비큐(Struttin’ with some barbecue)’, ‘웨더 버드(Weather Bird)’, ‘와일드 맨 블루스(Wild man blues)’, ‘웨스트 엔드 블루스(West End Blues)’ 등 상당히 많은 연주를 들어볼 수 있다. 오래된 SP판이라 여전히 음질은 좋지 않다. 하지만 초기 재즈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 귀 단련(?)이 된 청자라면 이 연주들에서 다른 음반과는 다른 비범함을 곧 감지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가 후대 연주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우선 모든 트럼펫 연주자는 크진 작진 모두 그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단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재즈가 빅밴드에서 비밥(Be-bop)으로 넘어가던 시절 가교 역할을 했던 콜맨 호



루이 암스트롱과 핫 파이브 / 출처 : pinterest.at

킨스(Coleman Hawkins)는 암스트롱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색소폰 주자였다. 재즈 보컬의 출발점 또한 그로부터다. 깨끗한 미성과는 한참 거리가 먼 개성 있는 목소리와 특유의 표현력뿐만 아니라 ‘두비두 밥 두왑’과 같이 의미가 없는 소리로 즉흥 노래를 하는 스캇 보컬의 원조이기도 하다. 경제공황이 터져 유흥 업소가 문을 닫자 시드니 베세는 연주를 그만두고 양복점 재단사로, 킹 올리버는 앞서 말했듯 당구장을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암스트롱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다. 클럽 공연, 방송 출연뿐 아니라 유럽 순회공연을 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 되지 않아 속을 썩던 시기에 조 글레이저(Joe Glaser)라는 평생의 매니저를 만나 금전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암스트롱을 재즈 연주자에서 대중 연예인으로 변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백인 대중의 어릿광대’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말콤 엑스, 마틴 루터 킹 등이 흑인 인권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1960년대에 아무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은 탓이 컸다. 게다가 본인도 예술가라기보다 엔터테이너, 광대라는 직업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근거 중 하나는 그의 별명으로 유명한 ‘사치모(Sachimo)’다. 심해어류인 아귀는 영어권에서 구스피쉬(goosefish), 앵글러피쉬(anglerfish), 데빌피쉬(devil-fish)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그중 하나가 새철 마우스



루이 암스트롱 / 출처 : wikipedia.org

(Satchel-mouth)다. 속어로 ‘입이 큰 놈’이란 뜻이 있다. ‘사치모’는 이를 줄인 말이다. 사람에 따라선 썩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본인 스스로 공연 도중 ‘사치모’란 말을 종종 쓰곤 했다. 빅밴드 리더인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가 듀크(공작), 카운트(=백작) 같은 유럽 귀족 계급을 별명으로 쓴 것과 비교된다.

이 시기엔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었다. 코넷 주자였던 빅스 바이더벡(Bix Beiderbecke)이다. 그는 독일계 백인이다. 흑인의 모방에 그쳤던 ODJB와 달리 백인 고유의 색깔을 재즈에 처음 입힌 천재로 평가된다. (의도적으로 과장한 비브라토를 사용하는) 루이 암스트롱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우수에 찬 음색을 갖고 있었고, 즉흥 연주 방식에서도 정해진 틀을 벗어난 독창성이 있었다. 그의 연주는 훗날 레스터 영(Lester Young),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로 이어지는 이른바 쿨 재즈(Cool Jazz)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대표곡으로는 ‘블루스를 노래하네(Singing the blues)’, ‘버지니아로 가고 있어(I’m coming Virginia)’, ‘리버보트 셔플(Riverboat shuffle)’, 자작 피아노곡으로는 ‘안개 속에서(In a mist)’가 있다.

그의 가정은 부유했지만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환경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여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낙오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선택한 재즈 연주자의 길은 부모가 몹시 싫어하는 직업이었고, 끝까지 자식을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일례로 알코올 중독과 폐렴에 의한 사망 몇 주 전 집에 왔을 때 자신의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보냈던 음반이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채로 옷장에 처박혀 있었음을 발견한다. 하지만 후대 연주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일생을 과연 누가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



울버린 오케스트라 (오른쪽에서 네 번째 트럼펫 연주자가 빅스 바이더벡)
/ 출처 : wikipedia.org